

# 01

##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와 미래 비전

안희정 충청남도지사



## I. 모두 인사

-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
- 오늘 우리도정 발전에 깊은 의미를 가지는 ‘미래100년, 충남의 발전전략 심포지엄’ 개최를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.
- 심포지엄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님
-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
  -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 원장님
  - 임옥상 미술연구소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
  -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서는 주제발표까지 맡아주시니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
- 특히, 오늘 대담에 좌장을 맡아 주실 정순오 한남대 교수님
  - 참석하여 주신 도의회 및 시군 의회 의원님, 시장·군수님, 정책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, 시민단체, 직능대표, 언론사, 공무원, 학생 등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- 또한,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
## II.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

- 오늘 심포지엄은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“어떠한 비전과 발전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야 할 것인가?”  
그리고, “그 주인공이 되는 도민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역할을 다해 비전을 실현할 것인가?” 라는 답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.
-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「내포시대의 의미」와 「환황해권 중심의 대도약 시대를 열어 갈 미래 비전」입니다.

- 작년 12.28. 충청도청이 마침내 도민의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. 1896년 고종황제 33년의 건도 이래 117년만의 역사적인 일입니다.
- 우리 충남은, 건도 당시 공주시대에는 농업국가의 중심역할을 했고, 1932년부터 시작된 대전시대에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중심축이었던 경부축의 핵심이었습니다.
  - 21세기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. 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심 무대가 되며, 경제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21세기 주역은 아시아 될 것임. 즉 ‘서해안시대’가 되었음.
- 그렇다면, 내포시대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으로 표현했듯이 전 세계 경제를 리드 하는 아시아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인 ‘서해안시대의 출발점’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  - 충청남도가 환황해권경제 그리고 전세계 경제를 이끄는 아시아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앞장서서 개척해나가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음
- 또한, 내포시대의 개막은 충청남도의 재도약과 도민 전체가 골고루 풍요롭고 행복한 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.

### Ⅲ. 충남의 미래 비전

- ①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합니다.
- ② 골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듭니다.
- ③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갑니다.

- ① 21세기 환황해권 시대 더 큰 충남으로의 도약
  - 20세기 미국 시장에 의존했던 산업화 시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축은 경부선이었습니다.
    - 개항기에는 목포·인천항이, 산업화시기에는 부산항이 중심이었다면, 이제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는 당진·대산·보령항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서해안이 그 주역이

## 될 것이라 확신

- 따라서, 우리 충청남도는 세계로 나아가는 “물류의 큰길”을 열어갈 항만물류 및 해양·수산 전담조직을 새로 꾸려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,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.
  - 내포신도시는 바로 이러한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충남의 미래가 있는 곳
  - 21세기 충남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,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도시,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더 큰 충남으로 도약할 것임

### ② 골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듭니다.

- 내포신도시와 4대권역의 거점을 중심으로
  - 북부권은 환황해권 생산·교역 거점으로, 서해안권은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로, 내륙권은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로, 금강권은 역사·문화관광·생태의 요람으로 권역별 기능특화와 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해 발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,
- 또한,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골고루 잘 사는 고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.

#### ◆ 4대 권역별 발전계획

- ① 북부권 : 환황해권 생산·교역 거점(천안·아산·서산·당진)
- ② 서해안권 :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(태안·보령·서천)
- ③ 내륙권 :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(홍성·예산·공주·계룡·청양)
- ④ 금강권 : 역사·문화관광·생태의 요람(논산·부여·금산)

### ③ 도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.

- 순순환 경제육성과 경제발전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체제 구축, 민간 주도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합니다.
  - 대중소기업 상생도모, 상생산업단지 조성, 강소기업 육성 등 충남형 순순환 경제 모델 구축
  - 2012년 현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설립지원 등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주목받는 민간주도의 협동조합 육성

- 농어업·농어촌·농어업인을 아우르는 3농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,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, 행복한 농어업인이 살아가는 충남을 만들어 갑니다.
- 행복한 충남을 이루기 위해 도민 모두가 이용하고 누리는 문화 관광의 구현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.
  - 충남고유의 역사·문화자산인 3대 문화권\* 개발
    - \*3대 문화권 : 백제·내포·기호유교문화권
  -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\* 확대
    - \*행복경로당 운영,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일자리 연계 복지시책 확대, 지방의료원 공공성 확대 등

#### IV. 마무리 말씀

- 이제 새롭게 출발한 내포시대에는 우리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‘3농 혁신’, ‘행정혁신’, ‘자치분권’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큰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면서, 서해안시대의 출발점을 공고히 다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.
-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도민의 참여 속에서 더욱 신뢰받는 도정과 비전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- 오늘 세분의 발제내용들이 우리 충청남도가 더 크게 도약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